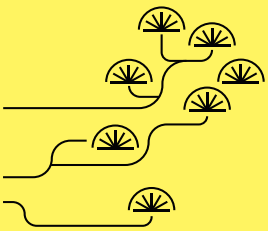


2020년 호남 문헌세가 학술대회

나주 도래 풍산홍씨 가문의 역사와 문화

2020. 11. 18. (수) 14:00~18:00
나주시민회관(2층 강당)

13:30 ~ 14:00	등록	
14:00 ~ 14:40	▸	**개회인사** 이종범(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
	▸	**기관 및 풍산홍씨 기탁현황 소개** 조광현(한국학호남진흥원 일반연구위원)
14:40 ~ 16:40 (주제발표)	▸	**석애 홍봉주의 학문과 사상** 안승준(한국학중앙연구원 수석연구원)
	▸	**나주 도래 풍산홍씨 가문의 인물과 문집** 김봉곤(원광대학교 연구교수)
	▸	**나주 도래마을의 공간 구성과 정자건축** 김재웅(조선이공대학교 교수)
16:40 ~ 18:00 (종합토론)	좌장 토론	홍영기(순천대학교 명예교수) 권수용(한국학호남진흥원 책임연구위원) 김기림(조선대학교 교수) 위주영(전남대학교 박사)
18:00	폐회	

주최·주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목차

나주 풍산홍씨 가문의 인물과 문집 9

김봉곤(원광대학교)

나주 도래마을의 공간 구성과 정자건축 31

김재웅(조선이공대학교)

토론문 53

김기림(조선대학교) 위주영(전남대학교)

주제발표

나주 도래 풍산홍씨 가문의 인물과 문집

김봉곤(원광대학교)

나주 풍산홍씨 가문의 인물과 문집

김봉곤*

1. 머리말
2. 나주 풍산홍씨와 노사학맥
3. 석애 홍봉주의 생애와 문집
4. 석천 홍규식의 생애와 문집
6. 성남 홍석희의 생애와 문집
7. 맺음말

1. 머리말

본고는 나주 도래 마을의 풍산홍씨의 인물과 문집을 검토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풍산홍씨는 시조 홍지경(洪之慶)이 안동 풍산에 정착한 뒤 후손들이 세거하면서 형성된 안동의 토성 중의 하나이다. 홍지경이 1242년(고종 29)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국학직학에 이르렀으며 안동 풍산에 정착하였다. 홍지경의 아들로 고려 첨의사인을 지낸 홍애(洪崖) 홍간(洪侃, ?~1304)는 시인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렸는데 홍간의 시는 『삼한시귀감(三韓詩龜鑑)』에 실려 전한다. 홍간의 아들 홍유(洪侑)는 충열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삼관대제학을 지냈고 홍유의 아들 홍연(洪演)도 문과에 올라 충숙왕 때 보문각대제학을 지냈다.

* 원광대학교 연구교수

조선 정조 때 홍문관 대제학을 지낸 이계(耳溪) 홍양호(洪良浩)가 지은 시조 홍지경의 처 순천김씨(順天金氏)의 묘비에 “자손이 번성하고 과신에 올라 생원 진사 310여 명, 문과 급제자 116명, 무과 급제자 90여 명, 정승이 5명, 판서 30명, 시호를 받은 이 30명, 수령 방백으로 지방관으로 나가서 나라에 봉사한 이 등은 이루 다 적을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풍산홍씨는 지금도 충북 청원 일원, 전남 나주 일원, 충남 천원 일원, 강원 원주 원성 일원, 경남 양산 일원에 집성촌을 이루고 옛 명망을 이어가는 명문거족이다.[1)]

나주 도래 마을의 풍산홍씨는 16세기 초 남평에 정착한 이후 많은 인물을 배출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정조 때 호조참판과 부승지를 지낸 홍봉주(洪鳳周, 1725-1796)는 문장으로 저명하였고, 홍봉주의 아들 홍익진(洪翼鎭)이 장성의 행주기씨 기태량(奇泰良)의 딸과 혼인함으로써, 장성의 노사 기정진의 가문과 혼맥으로 연결되었다. 본고에서는 그 중 석애 홍봉주와 석천 홍규식, 성남 홍석희의 인물과 문집을 표본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전체를 포괄하는 것은 필자의 역량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나주지역에 정착한 풍산홍씨 성산문중의 위업을 밝히고 노사학파를 선양해온 홍석희를 집중 부각함으로써 그 윤곽이 대략 드러나기를 기대할 뿐이다.

2. 나주 풍산홍씨 가문과 노사학맥

나주 도래 마을에 정착한 풍산홍씨는 고려 고종 때 문과에 장원한 국학직학(國學直學) 휘 지경(之慶)의 후손으로서 성천부사 홍수(洪樹)가 경기도 고양에서 나주로 이주하였으며, 홍수의 손자 건원릉 참봉 홍한의(洪漢義) 때부터 남평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도래마을의 풍산홍씨는 성천종중으로 불리운다.

이후 많은 인물이 배출되었는데, 특히 영·정조 때 홍봉주(洪鳳周, 1725-1796)는 소과와 문과에 모두 합격하여 호남의 소동파와 같이 문장이 뛰어나다고 격찬을 받았으며, 몸이 약하여 자주 고향에 내려왔으나, 정조가 그의 재주를 사랑하여 관직이 호조참판과 부승지에 이르렀다. 이후 홍봉주의 아들 홍익진은

1) 『디지털안동문화대전(http://andong.grandculture.net)』, 성씨조, 「풍산홍씨」

장성의 행주기씨 기태량의 딸과 혼인함으로써, 노사 기정진의 가문과 연결되었다. 홍익진이 결혼한 기태량의 딸은 기정진의 부친 기재우의 누나였기 때문에 기정진에게는 고모가 되는 것이다. 이후 기정진이 학문이 뛰어나서 당대에 현달함에 따라 홍익진의 손자 대에 모두 기정진의 문인이 된다. 홍봉주의 증손 홍규식이 지은 묘지명을 바탕으로 가문의 전후 내력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7세조 益河(자 士瀅) - 부친은 석일(錫一), 모친은 이천서씨(경양도 찰방 尙中의 딸), 부인은 나주김씨 경(慶).

6세조 以東(자 道仲)

5세조 壽源(호 酒隱, 鄭蕭隱, 金喚菴과 종유, 심환지찬 행장) - 유고가 있음. 珍原吳氏 受謙딸

고조 鳳周(호 석애)

증조 翼鎭(초명 義健, 자 景進) 비 행주 奇泰良의 딸.

조부 祐弼(자 乃中)

부친 承九(초휘 承鶴, 자 聖範, 호 菊坡, 1824-1852) - 노사 기선생에게 수학함. 나주오씨 燾伯의 딸(문과 사예 學素의 현손, 1826-1886)

생부 承百(자 孝範, 호 松洲, 1840-1886) - 순천박씨 在鉉여(계묘생 갑신졸) 진원박씨 悌煥여(병오 생 병술졸)

위에서 살펴본 대로 나주의 풍산홍씨 가문이 노사 기정진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은 노사 기정진의 고모가 홍익진과 결혼하였기 때문이다. 홍익진의 아들 우필은 아들 승구(承九, 초휘 承鶴, 자 聖範, 호 菊坡, 1824-1852)와 승백(承百, 자 孝範, 호 松洲, 1840-1886)을 노사 기정진에게서 보내서 수학하게 하였고, 승백의 아들로서 승구에게 양자간 홍규식은 기정진의 말년제자가 되었다가 다시 기정진의 뒤를 이은 송사 기우만의 문인이 되었다. 홍규식은 노사와 송사 문집 간행, 고산서원 건립 등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말년에는 두 선생을 사모하여 모현단을 짓고 향사를 지냈다. 홍규식에 이어 둘째 아들 홍석

희는 노사문인들에게 수학하여 문장을 대성하였다. 그는 광주, 나주, 남평, 영암, 담양, 장성, 화순, 고창뿐만 아니라 영남의 곳곳에 그 명성이 떨쳐 많은 문장가와 학자들이 찾아왔다.

3. 석애 홍봉주의 생애와 문집

홍봉주(洪鳳周, 1725-1796)는 본관은 풍산, 자는 휘세(輝世), 자민(子敏) 호는 석애(石崖), 남파(南坡)이다. 증조부는 홍익하(洪益河)이고 조부는 홍이동(洪以東), 부는 통덕랑 홍수원(洪壽源), 모는 오수겸(吳受謙)의 딸이다. 6세부터 글을 배웠는데 성취가 빨라서 주위 사람들을 놀래게 하였고, 전라도관찰사나 지방 수령들이 그 재주를 시험하곤 했다. 1745년 부친상을 당하여 삼년상을 주자가례에 의해서 치루었다. 이후 미호(渼湖) 김원행(金元行)에게서 수학하였는데, 1751년 겨울 대보단을 지나면서 강개함을 금치 못하고 노중련이 존주(尊周)한 뜻을 사모하여 시를 지었다. “늠름한 신후의 천하의 영웅을 분발하게 하고 강개함에 소수 “늠름하게 가신 뒤 천하의 영웅을 분발케 하고, 공연히 태사의 글에 남아있으니 강개함에 눈물이 수건을 적시네(凜凜身後各 奮發天下雄 空留太史筆 慷慨涕沾巾)”라고 노래하여 존주대의를 천명하였다.

1759년 기묘식년 사마시에 생원 3등으로 합격하였다. 반궁(성균관)에 있을 때, 이조판서 서명응(徐命膺)은 그의 문장이 소동파에 비긴다고 칭찬하고는 호를 호남의 소동파란 뜻으로 남파(南坡)라 칭하였다. 그는 소과에 합격한 후 휘릉참봉(徽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더욱 학문에 전념하였으며, 1763년에는 역천 송명흠(宋明欽)을 찾아가 수학하였다. 1770년에는 모친상을 당해 상을 치루었다. 1773년에는 계묘증광문과에 병과 20등으로 합격하였다. 이후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에 제수되었고 종부시주부(宗簿寺主簿), 종부시정(宗簿寺正)에 임명되었다. 이 때 그는 영조와 정성왕후 존호 추존시 공을 세우고 선원보를 바로잡아 정조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았다. 이후 그는 정조로부터 극진히 대우를 받았다. 병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게 되자 정조가 내의원(內醫院)과 관찰사(觀察使)에게 그를 돌보아 주도록 명하였다.

1789년 큰 흉년을 당하자 고향에서 만언소를 올려 시폐와 민막(民瘼)을 구

제하는 방책을 아뢰었고, 다시 성균관 전적으로 불렀다. 이후 1790년 통훈대부에 오르고, 충청도 도사, 사간원 사간, 어모장군, 용양위부사직 사헌부 지평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이 때도 상소하고 체직을 청하였는데, 조목별로 시폐를 아뢰고, 방백 수령을 현량한 사람으로 가려서 임금의 은택이 지방에까지 미치고 잘못된 풍속이 변할 수 있다고 진언하였다. 또한 당대에 사치 풍속이 만연되어 탐묵을 일삼는다고 주장하고 단지 순자(循資)하는 정치로는 폐막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임금의 성학이 현실에까지 고루 미쳐가는 정치를 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소는 당시 권귀들에게 밉게 보이는 계기가 되었다. 1792년에는 사헌부 장령, 헌납, 예조와 호조 정랑에 제수되었고, 1793년 사헌부 정언에 제수되고 역말을 내려 보냈으나 이 때도 나아가지 않고 상소를 올려 다시 과거의 폐단을 진술하고 어진 인재를 발탁하는 중요성을 아뢰었다.

1794년에는 통정대부에 오르고 호조참의, 형조참의에 제수되었다. 당시 대왕대비전이나 혜경궁이 칭경(稱慶)의 나이가 되자 홍봉주는 다시 전지를 올려 헌하하였고, 정조는 이에 다시 홍봉주에게 예조참의, 승정원 동부승지 겸 경연참찬관을 제수하였다. 1795년에는 좌부승지에 제수되었고, 예조참의에도 의망되었으나 권귀들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는 1796년 1월 5일 타계하였는데, 죽기 직전 유소(遺疏)를 올려 어진 사대부를 가까이 하고 환관과 궁녀를 멀리하라고 당부하였다. 그가 죽은 소식이 전해지자 관찰사 서정수(徐鼎修)에게 명하여 호장(護葬)하도록 하였다.

홍봉주는 학문과 덕행이 뛰어나 정조에게 특별한 총애를 받았는데, 그를 따라 배우는 인물들도 많았다. 5대손 홍석희는 서울 회동(晦洞)의 홍봉주 서재인 회사(晦舍)와 홍봉주가 고향에서 가르쳤던 문인들을 문집 및 애감록(哀感錄), 만제록(輓祭錄)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인물들을 추출하였다.

급문록(及門錄)

鄭大容 東來人 文科 吏判	鄭萬濟 동래인
李羲平 翰山人 牧使	李羲升 한산인

洪致榮 先生族弟 文科正言　　洪俊榮 後改名俊謨 致榮弟 進士
李羲準 한산인 문과판서　　洪奭周 先生族姪 文科左相
洪文榮 선생족제　　洪久榮 선생족제
羅學素 나주 문과 司藝　　李羲寅 현감
林德鎭 나주인 진사　　朴寅煥 함양인
宋龜默 新平人 진사　　金應萬 진주인
鄭王+它 진주인　　宋相炫 신평인
朴暉 밀양인 개명曄 문과 찰방　　文重澤 남평인
文益澤 남평인　　朴慶繪 밀양인
羅纘褧 금성인 진사　　崔裕東 隋城人
奇泰巖 행주인　　洪啓周 선생재종제
洪敏周 啓周弟　　朴履信 함양인
朴文煥 밀양인 진사　　洪王獻周 선생재종제
洪應周 헌주제　　崔國鉉 강화인
洪益謨 선생족제　　洪晩榮 선생족제
朴東元 밀양인　　李鎭老 청안인
曺榮杰 창녕인　　宋載文 신평인
丁錫禹 영광인　　林炘 평택인
金必欽 상산인　　吳相翕 나주인
柳珍錫 문화인　　尹翼煥 해남인
洪顯周 선생제 장사랑　　洪鼎周 현주제 장사랑
洪冕周 정주제 장사랑　　洪斗鎭 현주자 장사랑
洪國鎭 정주자 장사랑　　洪箕鎭 면주자 장사랑
洪錫曦 先生族孫 後改名 德文 崔鉉 강화인

홍봉주의 글은 오랫동안 간행되지 못하다가 1965년 홍봉주의 5세손 홍석희가 홍복희, 홍석희 발문을 붙여 석판본(石版本) 6권 3책의 『석애선생문집(石崖先生文集)』을 나주에서 간행하였다. 사주쌍변(四周雙邊)이며 반곽(半郭)은 20.3×14.4cm, 계선이 있으며, 11행 24字로 되어 있다. 주는 쌍행(雙行)이며, 상하향 2엽화문어미(上下向2葉花紋魚尾)로 되어 있다.

먼저 문집편찬을 위해 홍석희가 세운 범례는 다음과 같다.

1. 선생유문은 즉 간행되지 못하고 역년이 오래되고 병란에 없어진 것이 십에 팔구이다. 지금 집안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선생께서 손수 쓴 초고를 수집하고, 연원각가(淵源各家)에서 두루 수집하고 약간편을 합하여 3책을 만든다.
1. 선생의 유문 중에 농정 12조는 선생이 미처 봉진(封陳)하지 못하고 죽었다. 선생의 아들 남애공 익진(翼鎭)이 상소를 통해 글을 아뢰었기 때문에 지금 남애집에 합간하고, 석애(石崖)의 원집에 합하지 않았다.
1. 만사, 뇌사 등 여러 글이 남아 있는 것이 십에 하나가 못 된다. 가전 외에 제공의 문집에서 여러 가지 캔 것을 합하여 편말에 붙인다.
1. 장덕문자는 찬한 글이 제공의 문집에 갖추어 있다. 세상에 간행된 글이 간혹 있으니, 이것은 선생의 글이기 때문에 선생의 문집에 합하여 일편을 만들어서 편말에 붙인다.
1. 사마방목 및 문과방목은 다른 판본이 세상에 행해진 것이 없지 않으나 지금은 번거로움을 산삭하고 요점만 발라내어 편뒤에 붙여서 선생의 동년의 친구를 밝힌다. 급문제공은 세대가 멀어서 자세히 알 수 없다. 지금 선생의 유문과 집불록(執紼錄), 만제록(輓祭錄) 등의 책을 상고하여 약간 합하여 편마지막에 붙인다.[2)]

『석애선생문집』은 권1, 2에는 시 491수(湖上有感 외)가 수록되어 있다. 권3에는 소 5편(己酉萬言疏 외), 계(啓) 1편(請贈兵曹判書 忠勇將金公德齡贈謚啓)이 수록되어 있으며, 권4에는 서(書) 22편(上渼湖金先生 외), 부(賦) 4편(復志賦 외), 의(義) 1편과 송(頌) 1편(丕顯丕承頌), 책(策) 5편(問春云云 외), 찬(贊) 1편(保眞菴李公世樞畵像贊), 사(辭) 1편(題吳毅齋集辭), 고문(告文) 1편(族祖錦隱公享溪澗祠告文 외), 잡저(雜著) 8편(庚辰記事 외)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5에는 서(序) 2편(槐亭集序 외), 발(跋) 4편(陽山遺事跋 외), 행장(行狀) 6편(通德郎 新齋羅公炯奎行狀外)이 수록되어 있다.

2) 『石崖先生文集』 卷1, 凡例

권6은 부록(附錄)이다. 홍봉주에게 보낸 시와 글, 왕복서간, 만사, 행장, 묘갈명, 묘지명, 유허비, 기묘식년사마방목, 사마방목발, 계묘증광문과방목(癸卯增廣文科榜目), 문과방목발(文科榜目跋), 급문록(及門錄), 제발(題跋)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말 발문에 따르면 석애선생문집은 저자의 5대손 복희, 석희 등이 유고를 수습 정리하여 1904년(광무8)에 간행했는데, 간행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은 이들의 부친 석천공이 이미 대부분 이루어 놓았다고 기록하여 문집 간행의 공을 부친 홍규식에게 돌리고 있다.

이 밖에도 홍봉주의 경우 그의 부인 진주정씨와 진원오씨가 「음식보(飮食譜)」라는 글을 남겼다. 『음식보飮食譜』의 표지에는 '석애선생 부인(石崖先生 夫人) 숙부인 진주정씨 수필(淑夫人 晋州鄭氏 手筆), 숙부인 진원오씨 수필(淑夫人 珍原吳氏 手筆)'이라고 적혀 있다. 표지에는 '음식보(飮食譜) 오복제(五服制) 합부(合部)'라고 적혀 있고 음식에 관한 항목이 1장, 상례관련 내용 4장이 실려 있다. 음식에 관한 내용은 9면으로 주 내용은 주류 12종, 찬물류 9종, 침채류 3종, 만두와 상화霜花 3종, 병과류 8종과 내용해독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제목만 알 수 있는 것이 1종(자졈법) 등 모두 36종으로 구성되었다.

책의 음식 중에는 '교의상화'라 하여 밀가루로 반죽한 만두피에 꿩만두같이 소를 넣어 빚는 만두법도 소개하였다. 보통 교자(餃子, 만두를 이르는 말)에 해당하는 '교의'나 반죽을 발효시켜 소를 넣어 찐빵인 '상화'로 각각 불러 왔는데 합쳐진 음식명은 특이하다. 이것 외에도 '잡채병', '소범' 등 다른 고조리서에서 좀처럼 찾기 어려운 음식 용어가 등장한다. 『음식보』는 다른 조리서에서 보기 어려운 새로운 음식 용어가 등장하며, 『음식디미방』과 더불어 양반가 부인이 1700년대 한글로 쓴 조리서로서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3)]

3) 김귀영·이성우,「음식보의 조리에 관한 분석적 고찰」,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3-2, 한국식생활문화학회, 1988 및 한복려·한복진·이소영, 『음식고전』, 현암사, 2016 참조

4. 석천 홍규식의 생애와 문집

홍규식은 1871년 3월 4일 남평현 도천리에서 출생하였다. 생부는 송주(松洲) 홍승백(洪承百)이며 생모는 진원박씨 제환(濟煥)의 따님이다. 국파(菊坡) 승구(承九)가 아들이 없어서 양자로 들어갔다. 모친은 나주 나씨 도백(燾伯)의 따님이다.

홍규식은 8세에 노사선생에게 수학하였는데, 석천의 증조부 남애 홍익진이 노사 선생의 고모와 결혼하여 중표(中表)[4]의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사 선생은 홍규식이 찾아온 것을 매우 기특하게 여기고 사랑했다. 노사가 타계한 이후로는 송사를 스승으로 모셨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이 일어나서 주문과 외우고 사설을 행할 때에도 석천은 정도를 지키고 동요하지 않았다. 이러한 석촌의 굳세고 바른 도리를 지키는 것에 감동한 초토사 민종렬이 장계를 올려 호군(護軍)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병신년에 송사선생을 따라 창의하였으나, 선유사 신기선이 전지를 받들어 효유하자 파병하고 돌아왔다.

1918년 고종이 갑자기 죽자 동네 사람들과 동네 영호정에서 슬피 곡하였다. 기묘년에 모현단을 쌓고 노사, 송사 두 선생에게 석채를 행했다. 평생 옛글을 입고 옛 복장을 입고 헌정(獻靖)하였다.

『석천유고』는 홍규식의 둘째 아들 홍석희가 부친의 유고와 묘갈명과 만사를 정리하여 2책을 만들어서 1971년 6월 번계(樊溪) 김윤동(金潤東)의 서문을 받아 간행하였다. 김윤동은 홍규식이 1896년 의병을 모집하기 위해 지은 격문이 비장하고 격렬하여 송규식의 성정이 바르고 충의가 깊어 저절로 늠연한 마음이 일어남을 금치 못하였고, 묘갈명을 읽어보고 송규식이 노사와 송사 두 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의리를 강명하고 포폄하는 지기의 강개함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유고는 권1은 시(詩), 권2는 서(書), 통문(通文), 기(記), 축문(祝文), 제문(祭文), 묘지(墓誌)이다. 권3~권5는 부록이다.

권1 시(詩)는 4언시가 2수, 5언시는 고시 1수, 율시 1이며, 7언시는 절구가 11수, 율시가 35수이다. 4언시에는 자신의 거처인 석천(石川)에서 조석으로 공자와 주자의 가르침에 따라 지내겠다는 것을 읊은 「석천자영(石川自詠)」과

4) '중표(中表)'는 성(姓)이 다른 친척 간을 지칭할 때에 쓰이는 말이다.

청송(廳松) 성수침(成守琛) 선생이 지은 파산영(坡山詠)을 읽고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느낌을 차운하여 지은 「독청송성선생파산영유감근차기운(讀聽松成先生坡山詠有感謹次其韻)」가 있다.

5언시는 송사선생을 뵙고 돌아와 스스로 충신(忠信)을 위주로 하며 훼예(毁譽)를 분변하지 말며, 허물을 적게 하려도 해도 이기지 못할 때는 주야로 삼가야 한다는 「알송사선생이귀자경유음(謁松沙先生而歸自警有吟)」, 운암(芸菴) 이교정(李敎禎)의 80세 잔치의 연하첩(筵賀帖)을 차운한 시이다.

7언시는 고시 「제최상정황재벽상(題崔相廷黃齋壁上)」, 「풍악산(楓嶽山)」 2수, 「동지(冬至)」, 「제윤석만초당(題尹錫萬草堂)」, 「계아조(戒兒曹)」, 「석천정사원운(石川精舍原韻)」, 「경술원이일자술(庚戌元月二日自述」, 「원월칠일모인자(元月七日慕人字)」, 「주충신(主忠信)」, 「봉우인(逢友人)」으로 자신의 거처나 여행지, 친구를 만난 기쁨, 신년 초의 감상 등을 적고 있다.

율시는 35수가 되어 다른 시형식보다 많다. 스승인 송사 기우만이 1904년 광주 주흥동(朱興洞)에서 강학하는 모습과 풍광을 그린 「정송사선생(呈松沙先生)」, 일제를 물리치기 위해 일어난 의병장을 격려하며 쓴 「증의병장(贈義兵將)」 2수, 영호정(詠護亭)에서 시회를 열어 빈객을 초대하여 산수를 노래하고 술잔을 주고 받으며 인륜을 펼치는 즐거움을 노래한 「영호정시회창수(詠護亭詩會唱酬)」 3수, 우뚝한 편석(片石)과 큰 하천 옆에 모옥을 짓고 빈객을 맞이하고 가을 등불아래 독서하는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즐거움을 노래한 「석천사원운(石川精舍原韻)」을 노래하였고, 비 온 뒤의 느낌, 벗들이나 족친을 방문하여 지은 시도 여러 편이다.

권2의 서간문은 모두 25편이다. 1902년 3월 스승인 송사 기우만에게 보낸 편지로부터 고제식(高濟植), 박시표(朴時杓), 생질 류호숙(柳孝叔) 달근(達根), 이동준(李東俊), 척질 기원용(奇元用) 낙도(洛度), 사위 박인현(朴仁鉉), 나정균(羅正均) 상균(尙均), 정치수(鄭稚琇) 각원(珏源), 족질 홍이원(洪彝元) 병희(秉憙), 척질 박찬종(朴燦宗), 이교관(李敎官) 기호(綺鎬), 족대부(族大父) 부제학(副提學) 홍혁주(洪赫周), 척질 문정회(文正晦) 창선(昌善), 김달수(金達洙) 및 사위 김판석(金判錫) 형제, 족질 나주경(羅周京) 종환(鍾煥), 척질 기공길(奇公吉) 노선(老善), 최선종(崔善鍾) 및 사위 최학종(崔學鍾) 형제, 오공술(吳公述) 헌수(憲洙), 척손(戚孫) 나승휴(羅承休), 이박사(李博士) 미중(美中) 광수(光秀), 명숙서

(明叔敍) 형률(亨律), 박중호(朴仲豪) 흥규(興圭), 1943년 3월 이재삼(李在三) 굉규(宏奎)에게 보낸 편지까지 서로 간의 안부를 묻고 문중 일에 대해서 상의하는 편지이다. 생질 유달근에게는 1916년 11월 광주 장덕리에 사는 부해 안병탁과 그 문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스승인 송사 기우만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고, 족질 병희에게는 1924년 왜란 때 창의하여 승리한 호은(壺隱) 홍민언(洪民彦: 1537-1626)의 비석을 세우는 일을 논의하였으며, 족대부 부제학 홍혁주에게는 족보 간행시 고문을 맡아주라는 부탁을 하였다.

통문은 1894년 갑오동학농민혁명 때 동학에 물들지 말라고 당부한 것과 1896년 송사 기우만이 일으킨 의병운동에 가담하기 위해 남평에서 회의를 갖자고 한 「기동지사우통문(寄同志士友通文)」 2통, 1904년 금산전투에서 순절한 고경명과 조헌 등에 비석을 세우는 것에 협조하겠다고 금산비역소(錦山碑役所)에 보낸 통문, 1926년 서원 건립에 일조하겠다고 장성의 담대헌 유회에 보낸 통문, 1926년 고산서원이 창건되자 제향에 참여하겠다고 보낸 통문, 1930년 송사선생문집 간행소에 보낸 통문, 1931년 경북 현풍의 도동서원에 한훤당 김굉필의 얼손 국동(國東)이 종적(宗嫡)을 탈취하려고 모의한 사실을 규탄하는 통문, 1932년 중봉 조헌의 문집 간행소에 참석하게 보낸 통문과 다시 해주 봉양사에 간행된 중봉전서 10책을 구해보겠다고 알린 통문, 양회갑(梁會甲) 사후 능주향교와 사당 건립으로 보낸 통문 등이 전하고 있다.

기는 「여재각기(如在閣記)」와 「모현단건설기(慕賢壇建設記)」 등 2편이다. 「여재각기(如在閣記)」는 남평 유천(柳川)에 있는 홍규식의 13대조 건원릉 참봉 홍귀지(洪貴枝)를 향사하는 재실 여재각(如在閣)에 홍귀지와 최연손(崔連孫)을 함께 모신 내력을 기록한 글이며, 「모현단건설기(慕賢壇建設記)」는 1939년 12월 29일 스승인 노사 기정진과 송사 기우만를 추모하기 위해 설립한 내력을 기록한 글이다. 축문은 노사서생과 송사 선생 두 선생의 모현단을 설치하고 1939년 12월 29일 제향 때 바친 「모현단설향시고유문축문(慕賢壇設享時告由祝文)」과 「모현단상향축문(慕賢壇常香祝文)」 2편이다. 제문은 송사 기우만 선생, 일성재(日省齋) 문공 규정(文公 圭政), 도남(道南) 기노선(奇老善), 자부 나씨(羅氏)이 죽자 애도한 글이다. 묘지명은 「칠세조이조좌랑공묘지(七世祖吏曹佐郎公墓誌)」, 「육세조이조참의공묘지(六世祖吏曹參議公墓誌)」, 「고왕고석애선생묘

지명(高王考石崖先生墓誌銘)」, 「증왕고남애선생묘지(曾王考南崖先生墓誌證)」, 「왕고부분묘지(王考府君墓誌)」, 「선고묘지(先考墓誌)」, 「본생고묘지(本生考墓誌)」 등 7편으로 홍규식의 직계선조의 행적과 가족관계를 기록한 글이다.

권3은 전반부에는 송사 기우만이 1895년 1월과 1910년 3월 홍규식에게 서증(書贈) 2편과 1902년 3월 홍규식의 편지에 답장한 글, 문창선이 1902년 3월 써 준 서증과 작별시 및 1902년 3월과 1930년 4월 25일에 보낸 편지, 생질 유달근이 올린 3편의 글, 만호(晩湖) 박시표(朴時杓), 구림의 박찬종(朴燦宗), 거평의 나승휴(羅承休), 사평의 이기호(李紀鎬)가 올린 편지 5통이 수록되어 있다. 후반부에는 외생인 박인현(朴仁鉉)이 지은 홍규식 관련 행장(行狀)과 족질 찬희(纘憙)가 지은 묘지명(墓誌銘), 옥산(玉山) 이광수(李光秀)가 지은 묘갈명(墓碣銘)이 수록되어 있다.

권4는 홍규식의 『연보』이다. 3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단은 연기(年紀), 중단은 국내의 시사(時事)를 기록하고 홍규식의 행적은 하단에 기록하였다. 행적은 고종 8년(1871) 홍규식이 남평현 도천리에서 출생하여 75세인 1945년 3월 타계할 때까지의 행적과 행장과 모현단, 묘갈명이 작성되고 1977년 유고가 간행되기까지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권5는 모현단사적(慕賢壇事蹟)과 동초(東樵) 정철환(鄭喆煥)이 1972년 음8월 하순에 지은 「근제석천홍공행록후(謹題石川洪公行錄後)」, 1978년 7월 입추에 중헌(重軒) 윤정복(尹丁鍑)이 지은 「석천유고발(石川遺稿跋)」이 수록되어 있다. 모현단사적(慕賢壇事蹟)으로는 오남(鰲南) 김도중(金度中)이 지은 「모현단비명(慕賢壇碑銘), 정재(正齋) 양회갑(梁會甲)이 쓴 「모현단추모계서(慕賢壇追慕契序)」, 일재(逸齋) 정홍채(鄭泓采), 지호(砥湖) 윤경혁(尹璟赫), 수월(水月) 정헌규(鄭憲圭), 경당(敬堂) 최윤환(崔允煥)이 쓴 4편의 「모현단기(慕賢壇記)」 등의 글이 있다. 책의 맨 뒷부분은 1895년 정월 기우만의 친필로 된 서증(書贈)이 붙어 있다.

5. 홍석희의 생애와 문집

홍석희는 자는 여옥(如玉), 호는 성남(城南)이다. 1904년 1월 남평 도천에서 태어나서 1980년 7월 타계하였다. 석천 규식의 아들이요, 석애 봉주의 5세손이다.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나 시와 문장을 익혔는데 성취가 보통 사람이 따라갈 수 없이 비범하자, 부친이 자주 우리 집안이 장차 적막하지 않겠다고 칭찬하였다. 장성하여서는 송사 기우만과 동강(東江) 김영한(金甯漢)에게 나아가 수학하였고, 정재(正齋) 양회갑(梁會甲)이나 부해(孚海) 안병탁(安秉柝)으로부터도 가르침을 받았다. 학문의 요체를 들으면 두루 서책을 참고하여 깊이 사색하고 연구하였으며, 엽등(獵等)하지 않고 쉼 없이 탐구하여 사서오경을 비롯해서 제자백가, 역사서 등 제반 서적에 달통하였다.[5] 그러나 홍석희가 살았던 시대는 일제시대를 거쳐 구학(舊學)이 금지되고 해방 이후에는 심지어 한자를 폐지하기까지 한 시대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홍석희는 가정에서 효도하고 우애하며 고을에서 신의(信義)가 뛰어나서 정자의 기문이나 묘지명, 각종 서문, 발문을 요청하는 자가 있으면 거절하지 않고 지어주었다. 특히 선조들의 위업을 계승하고, 노사학파의 선양과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 이 때문에 그의 학덕을 존숭한 노사학파의 인물들이 구경계(久敬契)를 조직하여 그의 학문과 인품을 따르며 존숭하였다.[6]

홍석희가 타계하자 7월 2일 구경계 대표 유겸중(柳謙重), 서동근(徐東根), 염인환(廉仁煥), 윤정복(尹丁鍑) 등이 문상(問喪)와서 제문을 올렸다. 제문에서 이들은 홍석희의 자품이 형산의 박옥(璞玉)이나 곤륜산의 옥처럼 따뜻하고 윤택이 있으며, 흉금은 빙호추월(氷壺秋月)과 같아 깨끗하고 쇄락했고, 도량은 장강대하와 같이 잔물결을 가리지 않았다고 칭송하였다. 이어 자신들이 존숭하는 홍석희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우리들은 외람되이 총애를 받아서 전후로 좇아다닌 지가 십수 년. 정으로는 붕우이고, 의로는 형제입니다. 의심이 있으면 묻고, 생각이 있으면 질정하였으니,

5) 尹丁鍑撰,「城南先生豊山洪公景慕碑銘」, 1982.
6) 같은 글.

사생(師生)이라고 해도 좋았습니다. 이에 계를 맺고 구경(久敬)이라 하였으니, 매양 춘삼월에는 산수(山水)와 연운(煙雲) 사이에 모여 문자로 뜻을 펼치고 배반(杯盤)으로 마음을 담아 보냈으니, 정을 붙여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쉽사리 얻을 수 없는 즐거움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공이 갑자기 우리들을 버리시고 홀연히 떠나실 줄 알았겠습니까.[7]

이후 1982년 구경계 계장 유겸중(柳謙重)과 홍석희의 족질 홍기현(洪起鉉)이 중헌 윤정복에게 글을 받아 「성남선생풍산홍공경모비(城南先生豊山洪公景慕碑)」를 세우고 홍석희의 학덕을 길이 기렸다.[8]

홍석희의 글은 『성남만록(城南漫錄)』이란 제명하에 필사본의 형태로 전하고 있다. 문집 간행을 염두에 두고 목록을 만들고 문체별로 다음과 같이 엮었다.

1권 시(詩), 사(辭), 찬(贊)
2권 왕복서 1
3권 왕복서 2
4권 왕복서 3
5권 왕복서 4
6권 서(붓으로 쓴 것)
7권 서(원고지에 쓴 것)
8권 기(붓으로 쓴 것)
9권 기(원고지)
10권 발,제문, 축문(붓)
11권 발(원고지)
12권 상량문, 통문(원고지)
13권 비명(붓)

---

7) 久敬契 祭文(1980), "鄙等猥蒙寵愛 前後追逐十數年 以情則朋友也 以義則兄弟也 至於有疑則問 有事則質 謂之師生 可也 爲之結一契 曰久敬 每以春三之節 聚首於山水煙雲之間 文字敍之 杯盤寄情 以爲板蕩此世 未易得之樂 孰謂公 遽棄吾等 而恝恝然歸也"
8) 尹丁鎭撰, 「城南先生豊山洪公景慕碑銘」, 1982.

14권 비, 신도비(원고지)
15권 묘갈명(붓)
16권 묘갈명
17권 묘갈명
18권 묘갈명
19권 묘갈명
20권 묘지명
21권 묘표(15대 성균생원)
22권 묘표
23권 행장(「成均館典籍洪公鳳祥行狀」)
24권 행장
25권 행장
26권 전(傳)
27권 봉안 고유문(奉安告由文)
28권 동유록(東遊錄)
29권 목록

권1은 시(詩)와 사(辭), 찬(贊)이다. 230쪽에 걸쳐 수록되어 있으며, 시 편수는 490편에 달한다. 시의 형식은 오언 고시, 오언율시, 칠언고시, 칠언율시인데, 칠언율시로 지은 작품이 가장 많다.

권2는 『往復書』이다. 경남 산청군 단성면 교동(校洞)에 사는 권창현(權昌鉉)에게 보낸 편지를 시작으로 200여 통에 달한다. 그가 거주하는 남평과 광주, 광산을 중심으로 나주, 영암, 화순, 보성, 곡성, 구례, 순천 등지의 우인이나 친, 인척에게 보낸 편지가 많다. 전북의 경우는 고창, 부안 등지에 보냈고, 경남의 경우는 산청, 합천, 진주, 의령이 많은데, 주로 노사 기정진의 학맥을 계승한 인물들과 주고 받은 편지이다. 경북의 경우는 안동이 가장 많다. 그의 관향이 풍산이기 때문에, 안동의 풍산유씨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편지를 왕래하였다. 서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기타 충남의 논산, 천안, 천원 등지의 인물들과 편지를 주고 받았다. 그 중 1967년 朴仁鉉)에게 보낸 것으로 추

정되는 편지는 국한문 혼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6면에 걸쳐 서술한 장문이다.

권3도 왕복서이다. 장성군 장성읍 태창동(泰昌洞)에 사는 벽농(碧農) 김상진(金相晉)에게 보내는 편지를 시작으로 210통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그 중 1974년 3월 작성된 「고산서원증축보수진정서(高山書院增築補修陳情書)」는 고산서원의 증축과 보수를 위해 대통령에게 올리는 상서(上書)로서 6면에 해당하는 장문이다.

권4도 왕복서이다. 전북 고창 고수면 예지리에 사는 극헌(克軒) 이면우(李冕雨)에게 보낸 편지를 시작으로 14통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권5도 왕복서이다. 경북 안종 풍천면 하회리에 사는 유한수(柳漢秀)에게 보내는 편지를 시작으로 140여 통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권6은 서(序)이다. 1924년 봄 산재에서 독서하였을 때 왜적의 녹을 탐내어 신학문을 배우면서 비웃자 약간편의 말을 엮어 향죽전이라고 서문을 붙인 「향죽전서(香竹傳序)」를 시작으로 62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전주이씨, 광산김씨, 음성박씨, 서산유씨, 풍산홍씨, 죽산안씨, 동복오씨, 이천서씨, 홍주송씨, 광산김씨충장공 파보 등 족보 관련 글이 많으며, 각종 서책이나 계안 등의 서문도 상당수에 달한다. 그 중 「송사선생만제록서(松沙先生挽祭錄序)」는 기우만이 1916년 10월 타계했을 때 기우만과 교류한 인물들과 문인들이 쓴 만사와 제문을 엮어 1979년 10월에 만들어진 『송사선생만제록(松沙先生挽祭錄)』의 서문이다.

권7도 서문으로 「송사선생문집습유서(松沙先生文集拾遺序)」를 시작으로 17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송사선생문집습유서」는 송사 기우만의 문집 편찬 이후 추가로 글을 모아서 『송사선생문집습유』를 편찬하고 1975년 12월 서문을 쓴 글이다.

권8, 9는 記이다. 송학(松鶴) 서승태(徐承台)와 서벽(棲碧) 홍종식(洪宗植)을 제향하는 송학단(松鶴壇)의 내력을 적은 「송학단기(松鶴壇記)」를 시작으로 95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각종 누정과 서실, 향교, 사당에 관한 기문으로 광주, 장성, 담양, 화순, 영광, 영암, 화순, 고창 등지로부터 멀리 안동과 진주, 서울에 보내는 글이 망라되어 있다. 「영안재중건기(永安齋重建記)」는 경북 안동, 「진주농포정충의공문부사당기(晉州農圃鄭忠毅公文孚祠堂記)」는 왜란 때 의병을 일으킨 정문부 사당이 건립될 때 지어진 글이다.

권10는 발(跋), 제문(祭文), 축문(祝文)이다. 발문은 홍석희 가문에 소장된 묵적을 세권의 책으로 묶어서 1944년 11월에 지은 「세장진필발(世藏珍筆跋)」을 비롯해서 33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각종 문집과 읍지, 향교, 서원지 등에 대한 발문으로, 「기묘사마방목발(己卯司馬榜目跋)」과 「석애집발(石崖集跋)」은 석애 홍봉주의 진사합격 방목과 문집 편찬을 마무리 짓고 지은 발문이며, 「고산서원지발(高山書院誌跋)」은 1968년 간행된 『고산서원지』에 대한 발문으로 홍석희가 노사문인들을 대표하여 지은 글이다.

제문은 후석 오준선이 타계했을 지은 「제후석문(祭吳後石文)」 등 25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주로 노사학맥과 친인척에 관한 제문이 많다. 특히 그가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승지 김영한이나 정재 양회갑, 노사의 후손인 장헌(莊軒) 기노장(奇老章)에 관한 제문이 고유문은 회재(懷齋) 박광옥(朴光玉, 1526-1593)의 영당을 중건할 때 지은 고유문을 비롯해서 29편이 수록되어 있다. 포은선생 사당, 영귀서원, 고강사, 계간사(谿磵祠), 국암사(國巖祠) 고유문과 축문, 설정(雪汀) 이흘(李忔)의 조천행적비(朝天行績碑) 고유문 등이 실려 있다.

권11은 발문은 「지호집발(砥湖集跋)」과 천와유고발(泉窩遺稿跋) 등 2편이 실려 있다.

권12는 상량문과 통문이다. 상량문은 「월정서원중건상량문(月井書院重建上樑文)」, 「봉암서원중건상량문(鳳巖書院重建上樑文)」, 「노사선생문집장판각상량문(蘆沙先生文集藏板閣上樑文)」, 「귀래당상량문(歸來堂上樑文)」, 「영모재상량문(永慕齋上樑文)」, 「양계사강당중건상량문(良溪祠講堂重建上樑文)」, 「육우당중수상량문(六友堂重修上樑文)」, 「영안재중건상량문(永安齋重建上樑文)」(경북 안동), 「경모재중건상량문(敬慕齋重建上樑文)」, 「귀후재상량문(歸厚齋上樑文)」, 「필분재상량문(苾芬齋上樑文)」, 「무양서원상량문(武陽書院上樑文), 「죽림정중건상량문(竹林亭重建上樑文)」, 「지산사상량문(志山祠上樑文)」(전북 부안), 「엄이재중건상량문(掩耳齋重建上樑文)」 등 15편으로 홍석희의 뛰어난 문장력이 가장 잘 드러나 있다. 「영안재중건상량문(永安齋重建上樑文)」은 경북 안동, 「지산사상량문(志山祠上樑文)」은 전북 부안에서 요청하여 지어진 상량문이다

통문은 남평사림들의 요청으로 구성사를 건립하기 위해 지은 「남평사림청건구성통문南平士林請建九成祠通文」 등 29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道南遺

稿』나 『호남문원(湖南文苑)』 등 문집 간행을 위해 보낸 통문 뿐만 아니라, 노사문인들의 시회 결성을 위한 「풍영계창립간통(風詠契創立簡通)」이나 「송사기선생비역소통문(松沙奇先生碑役所通文)」, 현와 고 선생(弦窩高先生)의 사당을 건립하기 위해 고산서원에서 보낸 통문은 노사학맥의 결속과 선양을 위한 중요한 글이다. 뿐만 아니라 홍석희는 1960년 3월 노사선생연원록반질통문(蘆沙先生淵源錄頒帙通文)을 작통해 『노사선생연원(蘆沙先生淵源錄)』이 다음과 같은 원칙 아래 작성되고 반포할 예정임을 밝혔다.

1. 편집내용 : 선생의 연보(年譜), 행장(行狀), 신도비명(神道碑銘), 묘갈명(墓碣銘), 선생문인편(先生門人篇)을 순차로 상권에 편집하고, 연원제가는 하권에 편집했다.
2. 선생의 유서(遺書)중에 납량사의 외필, 삼정책 병인소는 후인들이 보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연보 중 축년조(逐年條)에 편집했고, 사제문(賜祭文) 또한 축년조 밑에 편집했다.
3. 책값은 한 질에 2책 백지판은 4천환, 노지판(魯紙板)은 2,500환이다.
4. 반질장소는 광주시 계림동 1구 동화당(東和堂) 조규복(曹圭復) 방이다(다만 22일 이후로는 장성 진원면 진원리 담대헌에 來臨(왕림)해야 한다).

13권부터 27권까지는 묘갈명, 신도비, 행장, 전(傳), 봉안고유문 등으로 성남만록의 묘도문자와 인물의 행적에 관한 글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28권 동유록(東遊錄)은 1977년 양력 11월 2일(음력 9월 21일) 수요일 풍산홍씨 성천공(成川公) 종중에서 광주문화관광사 광성여객을 타고 하동, 충무, 진주, 경주, 동해안 등을 유람하고 11월 4일 저녁에 도착한 여행기이다.

위와 같은 홍석희의 『성남만록』은 홍석희가 20세기 중엽 호남사회와 호남문단, 노사학파, 문중에서 차지에서 위치가 매우 높았음을 반증하고 있다. 다만, 홍석희의 글에는 잡저가 없다. 이 때문에 그가 노사학맥을 계승했으면서도 노사철학이나 경세에 관한 특별한 사상이 없다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그는 곳곳에 노사철학과 경세에 관한 글을 남겨두고 있다. 예컨대 권10에 수록

된 예컨대 「납량사의외필역해발(納凉私議猥筆譯解跋)」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위 두 책은 문간공 노사 기선생이 저술한 것이다. 그 중 납량사의는 세상 사람들이 리일(理一)을 형기(形氣)에 떨어진 지위에 한정시키고, 분수를 형기(形氣)에 떨어진 뒤로 국한시키니 리(理)와 분(分)이 서로 떨어지게 되었다. 또 외필은 태극(太極)의 동정(動靜)을 밝힌 설이다. 내 벗 춘전(春田) 이혁(李爀)이 전남대학교 문리과 학장을 맡고 있을 때 여러 유생들이 두 글의 뜻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자가 많았다. 그러나 제생들이 이미 깊이 익히고 파헤친 공부가 없으니 반드시 자세히 설명하고 세밀히 풀어주어야 이해할 수 있는데, 국문(國文)으로 번역하고 풀이해주지 않으면 사생(師生)들이 수수(授受)할 때에 그 어찌 능히 흡족할 만한 깨달음을 얻겠는가.
>
> 그러나 이혁 형은 학교 업무가 바빠서 겨를 내어 붓을 잡을 겨를이 없었다. 이에 고산서원 제유(諸儒) 중 박이옹장(朴而翁丈) 흥규(興圭), 이성남장(李城南丈) 종원(鍾遠), 정만재(鄭晩齋) 재회(在會), 기장헌(奇莊軒) 노장(老章) 등 여러 사람들이 의논하여 내게 번역과 풀이를 맡겼다. 나는 일찍이 이 책의 글에 대해서 탐구한 적이 없어서 여러 달을 지나서야 겨우 일을 마치고 이형에게 주었다. 그러나 그 구두와 현토가 마음속에 충분하게 여기지 못한 곳이 많아서 일찍이 효당 김문옥과 고당 김규태 두 형이 이 책을 숙독하고 한 번 질정해주었으면 하였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두 형이 갑자기 천고의 객이 되었으니 한 번 탄식을 금치 못하고 글을 쓴다.

그가 납량사의와 외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고산서원 제유(諸儒)들의 뜻을 받들어 납량사의와 외필에 대해 번역하고 풀이하였다는 내용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지은 『납량사의외필역해(納凉私議猥筆譯)』를 찾아서 그의 잡저로 편찬해야 한다.

7. 맺음말

나주 도래 마을의 풍산홍씨는 16세기 초 남평에 정착한 이후 많은 인물을 배출해 왔다. 특히 영, 정조 때 홍봉주(洪鳳周, 1725-1796)는 소과와 문과에 모두 합격하여 호남의 소동파와 같이 문장이 뛰어나다고 격찬을 받았으며, 몸이 약하여 자주 고향에 내려왔으나, 정조가 그의 재주를 사랑하여 관직이 호조참판과 부승지에 이르렀다. 이후 홍봉주의 아들 홍익진은 장성의 행주기씨 기태량의 딸과 혼인함으로써, 노사 기정진의 가문과 연결되었다. 홍익진이 결혼한 기태량의 딸은 기정진의 부친 기재우의 누나였기 때문에 기정진에게는 고모가 되는 것이다. 이후 기정진이 학문이 뛰어나서 당대에 현달함에 따라 홍익진의 손자 대에 모두 기정진의 문인이 된다.

본고는 홍봉주 이후 배출된 풍산홍씨 인물 중에서 홍봉주, 홍규식, 홍석희를 고찰 대상으로 삼았다. 홍규식은 홍봉주의 현손이며, 홍석희는 5대손이다. 홍규식은 노사 기정진과 송사 기우만의 제자로서 노사학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홍석희는 송사 기우만이나 동강 김영한을 비롯해서 정재 양회갑, 부해 안병탁 등 송사 기우만의 문인들에게서 수학하였는데, 인품과 문장이 뛰어나서 남평, 나주, 광주, 담양, 장성, 화순, 영암 등 비롯해서 전라북도 고창, 남원, 그리고 경남 산청, 진주, 의령, 경북 안동 등 곳곳에서 그에게 문장을 받기 위해 찾아왔다. 그가 남긴 방대한 양의 문집은 아직 필사본 형태로 머물러 있고, 아직 체계적으로 편찬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그의 문집과 행적을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향후 노사학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홍석희의 글과 사상이 재조명되기를 바라며, 아직 수집되지 못한 원고를 포함하여 문집 간행이 시급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글을 맺는다.

주제발표

나주 도래마을의 공간 구성과 정자건축

김재웅(조선이공대학교)

나주 도래마을의 공간 구성과 정자건축

김재웅*

1. 도래마을의 공간구성
   1) 마을구조
   2) 분촌
   3) 공간구성
2. 도래마을의 누정(樓亭) 건축
   1) 평면구성과 규모
   2) 종단구성과 포작
   3) 귀틀의 구성
   4) 창호 및 수장
3. 맺음말

도래마을은 나주 다도면의 북단인 풍산리에 자리하여 면사무소에서 1리 정도 떨어져 있으며, 전면에 펼쳐진 독뱅이들의 가장자리에서 식산 자락이 시작되는 곳에 입지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는 씨족마을이 농업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기에 넓은 농경지의 가장자리에서 산자락이 시작되는 곳에 자리 잡기 때문이다. 또한 식수와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물길을 끼고 있다. 도래마을의 특징은 마을의 유력한 문중인 풍산홍씨의 두 계파와 강화최씨가 각각 봉우리 하나와 물길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좀이다. 즉, 풍산홍씨 봉교공파는 풍악산에

* 조선이공대학교 교수

대응하는 후곡, 석계공파는 감태봉에 대응하는 동력, 강화최씨는 주산봉에 대응하는 내촌을 차지하여 각각 일정한 독립성과 완결성을 가지고 주거지들이 정착되었다. 이처럼 세 줄기의 물이 각각의 주거지를 지나 서쪽들에서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그 모양과 의미가 실로 내 천(川)자와 유사하다. 도래(道川)라는 지명은 이와 같은 마을의 지형과 입지에 기반하고 있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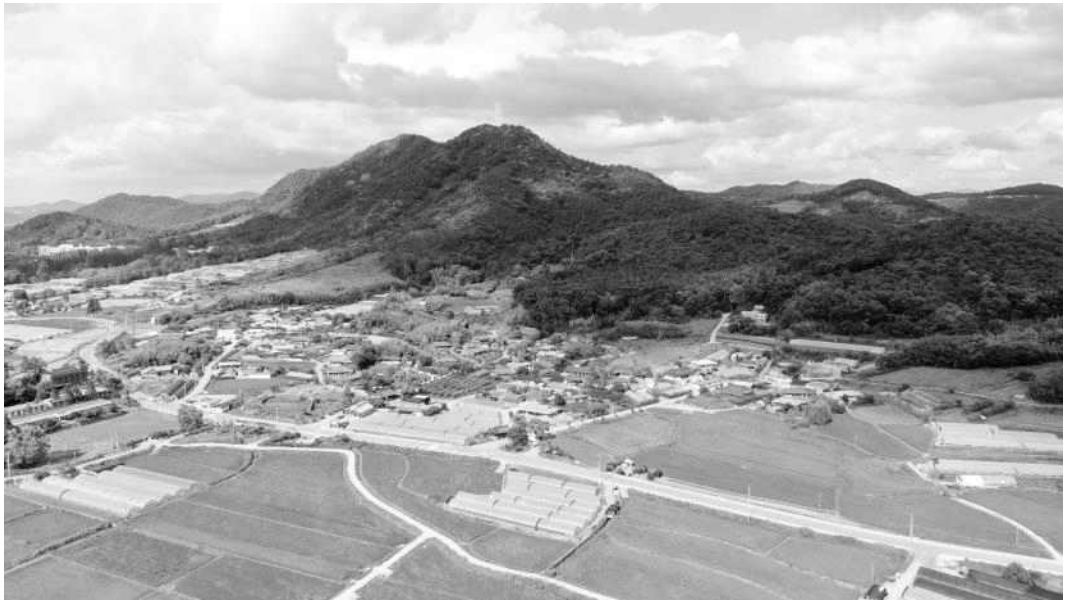


그림 1. 식산자락에 자리한 도래마을

1. 도래마을의 공간구성

1) 마을구조

서쪽의 농지와 동쪽의 산지 사이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큰 길이 지나가고, 3개의 물길과 나란한 3개의 안길로 각각의 주거지 영역으로 접근한다. 이 길들의 끝은 배산임수의 최적지로서 각 문중의 종가가 선점한 곳이다. 도래마을에서 300평 이상 되는 대지는 모두 주거지의 가장 뒷면 언덕이 시작되는 곳에 있다. 따라서 안길 자체가 원래는 종가로의 접근로에 다름 아니다. 다음에

1) 한국예술종합학교 도시건축연구소(2007), 나주 도래전통마을 조성 계획 연구, p.27.

서는 집들은 지형적 문제와 종법적 규제로 인해 종가로 가는 길 주변에 자리잡게 되고, 이에 따라 안길이 가지형으로 발달하게 되면서 점차 안쪽으로 주거지가 확장된다. 이와 같은 마을구조는 자연스럽게 영역을 형성하게 되었고, 현대 행정구역에서도 내촌은 1반, 동력은 2반, 후곡은 3반으로 구획되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종가의 위치나 주요한 건축물의 구성으로 볼 때 중앙부 동녘의 줄기가 가장 먼저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두 줄기 중 후곡의 줄기가 보다 크기 때문에 먼저 생긴 것 같다. 내촌의 줄기는 보다 위에 중앙줄기에서 분기해 나간 것으로 생각되며, 중앙줄기에서 충분히 분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중앙 줄기는 석계공파 후곡 줄기는 봉교공파의 종가가 각각 종착지점을 이루고 있다.

그림 2. 도래마을 항공사진(194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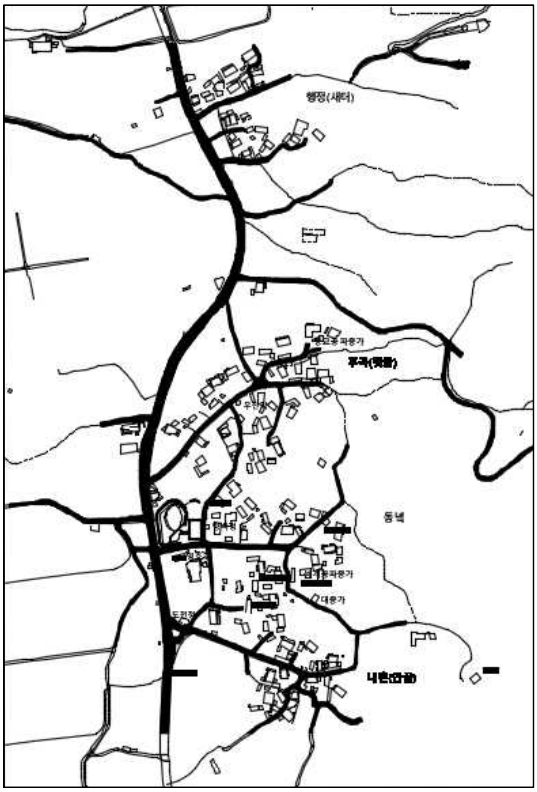


그림 3. 도래마을 배치도(2020년)

세 개의 줄기가 외향적, 공식적 남성적이라면 이들 줄기의 사이 사이를 잇는 가지들은 내향적, 비공식적, 여성적 루트라 할 수 있다. 또한 각 줄지 사이에 영역을 가르는 녹지가 충분히 있었음을 옛 항공사진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북단에 놓은 후곡의 녹지는 겨울 찬 바람을 막는 방풍림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에는 농경지 확대에 따라 이들 녹지가 상당히 줄어든 상태이다.

2) 분촌

일반적인 규모의 씨족마을에서 가구수가 60호를 넘어서게 되면 마을구성이나 경작지 분할에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가구수가 1대를 지날 때마다 평균 2배수씩 증가한다면 입향 이후 6대가 지나면 64가구에 이른다. 약 2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더구나 이 기간 동안 인적 구성이 친족으로서의 혈연적 유대관계가 긴밀하게 작동하는 당내친(堂內親)의 범위를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일부 지파의 분촌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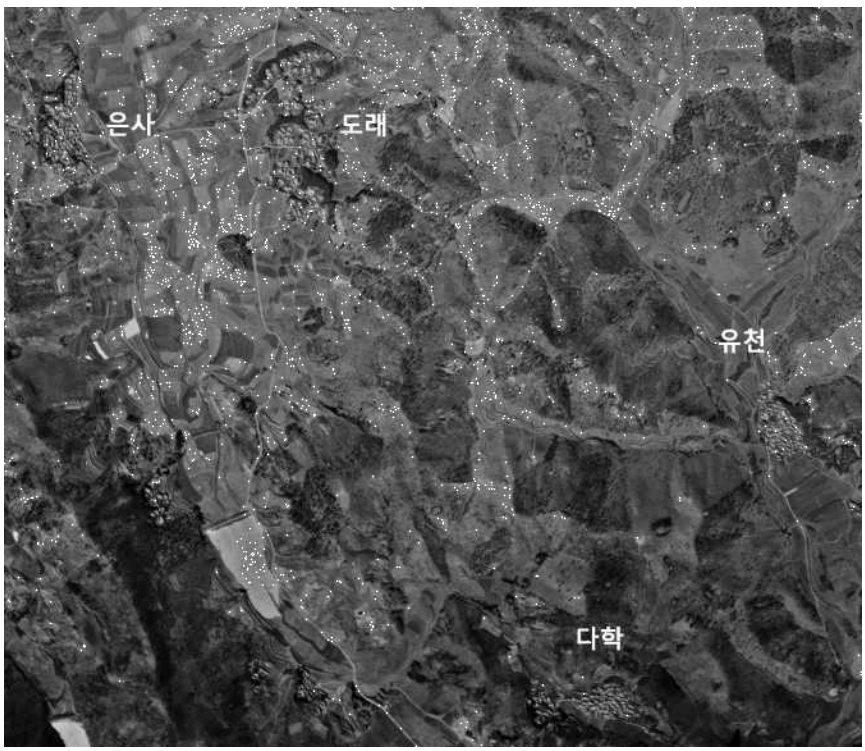


그림 4. 도래마을 일대 항공사진(1948년)

도래마을의 분촌은 먼저 강화 최씨와 풍산 홍씨간의 거주영역이 구분되면서 시작되었고, 풍산 홍씨 내에서 두 개의 지파가 각 자신의 소종가를 중심으로 동네를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더 나아가 마을 간의 차원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분촌을 동해 갈라져 나온 마을들은 모마을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도래마을에서 독뱅이들을 건넌 은사마을이나, 다도면 덕동리 송학리, 남평읍 이남리 모두 두 풍산 홍씨의 세거지로서 비일상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3) 공간구성

조선시대 씨족마을의 구성은 크게 생활영역, 생산영역, 의식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영역은 단위주거의 내부에서부터 공동체의 영역까지 확대된다. 도래마을의 단위주거인 살림집은 전통한옥과 근·현대에 지어진 일반적인 농촌한옥 그리고, 전라남도의 행복마을 사업에 의해 근자에 지어진 신한옥들이 혼재해 있다. 또한 도래마을은 동녘에 자리한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한옥을 기준으로 반경 500m 이내의 건축행위가 현상변경 검토를 거치는 등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

다도에 자리한 전통한옥은 동력에 나주계은고택(구, 홍기응가옥)과 나주홍기창가옥이 각기 국가민속문화재 제151호와 시도민속문화재 제9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고, 내촌에 국가민속문화재 제165호인 나주우남고택(구, 홍기헌가옥)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나주계은고택과 인접하여 내셔널트러스트가 운영하는 '도래마을옛집'이 한옥과 민박체험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인근 덕동1리 입석에도 시도민속문화재 제10호인 나주홍기종가옥이 보존되고 있다.

그림 5. 나주계은고택

그림 6. 나주홍기창가옥

그림 7. 나주우남고택

그림 8. 나주홍기종가옥

생산영역으로는 마을 앞에 넓게 펼쳐진 독뱅이들을 꼽을 수 있고, 마을 후면도 크고 작은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다. 지금은 연못으로 조성되었으나 양벽정 바로 앞까지 농경지였음을 옛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래마을에서 공동체적 시설로 중요한 건축은 정자이다. 정자는 공동작업과 마을결속을 위해 마을의 입구에 세우는 생활공간으로서의 모정과 문중을 기념하고 유교적 세계관 토대로 건립되는 의식공간으로서의 정자로 구분할 수 있다. 도래마을에서 모정의 기능을 하는 정자는 내촌의 도천정, 동력의 앙벽정, 후곡의 우산각을 들 수 있다. 이 중 앙벽정은 1587년 홍징이 처음 건립했다고 하여 여전히 가장 중요한 공동체 시설이다. 한편 좋은 경치를 찾아 호젓하게 세워진 계은정은 1928년에 건립된 정자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의 풍광을 조망하는 유가적 전통을 잇는 곳이다.

2. 도래마을의 누정(樓亭) 건축

누정(樓亭)은 누각(樓閣)과 정자(亭子)를 함께 일컫는 명칭이다. 누각은 누관(樓觀)이라고도 하며, 대개 높은 언덕이나 돌 혹은 흙으로 쌓아올린 대 위에 세우기 때문에 대각(臺閣) 또는 누대(樓臺)라고도 한다. 한편 정자는 누각에 비하여 작은 건물로서, 벽이 없고 기둥과 지붕만으로 되어있다. 놀거나 휴식할 장소로서 산수 좋은 곳에 세우는데 정각(亭閣) 또는 정사(亭榭)라고도 한다.

유교의 도입에 따라 조선시대 건축에서 남성공간이 확대되었고, 특히 호남

지역에서는 은거와 유배를 위한 누정과 별서가 많이 조영되었다. 누정은 유학적, 도학적 사고를 응축한 무릉도원(유토피아)으로 사회교류의 장이 되었으며, 이 지역 조선시대의 누정은 호남사림의 세계관이 투영된 곳으로 풍류를 중시하고 산이 낮고 평야가 많은 호남의 문화적,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윤일이, 2006)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도래에 자리한 전통적인 누정은 영호정과 양벽정, 계은정을 꼽을 수 있다. 내촌 입구에 지어진 도천정(道川亭, 1997년)과 은사에 지어진 모남정(慕南亭, 2003년)도 한식 목조 구법이기는 하나, 현대에 지어진 것이며 지붕 기와도 현대식 일체형 기와를 올리는 등 전통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풍산1리 동녘의 집입부에 자리한 영호정은 동녘길을 사이에 두고 양벽정과 나란히 놓여 있다. 영호정은 동녘길 전면에 바로 면하여 오가며 쉬이 걸터앉아 쉬어 갈 수 있는 위치이고, 양벽정은 담장으로 구획되어 들어가자면 마음먹고 발을 옮겨야 한다. 이러한 입지와 담장의 구획만으로도 그 누정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9. 영호정(좌: 옛사진, 우: 2019 현재)

1) 평면구성과 규모

영호정은 남평현 내에 설립한 4개 학당 중 하나인 도천학당의 역사를 전승한 건물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물이다. 영호정은 전면 4칸 측면 2칸의 규모로 마루로만 구성된 통칸형이며, 그 간살은 전면 모두 8자를, 측면은 9자로

구성하였다. 덤벙주초에 원주를 세워 보아지와 주두를 올려 보머리를 받게 한 익공(翼栱)집이며, 홑처마에 팔작지붕이다. 옛 사진을 통해 한때 벽돌과 유리창호로 외벽이 시설되었던 모습이 확인된다. 마루 하부와 상부를 벽돌로 쌓고, 문얼굴을 달아 유리창호를 시설하였고, 소로 사이의 빈 공간도 모두 채워 외기가 차단되도록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외벽과 유리창호는 모두 철거되고, 문얼굴을 시설하였던 자국만 남아있다.

그림 10. 양벽정

그림 11. 계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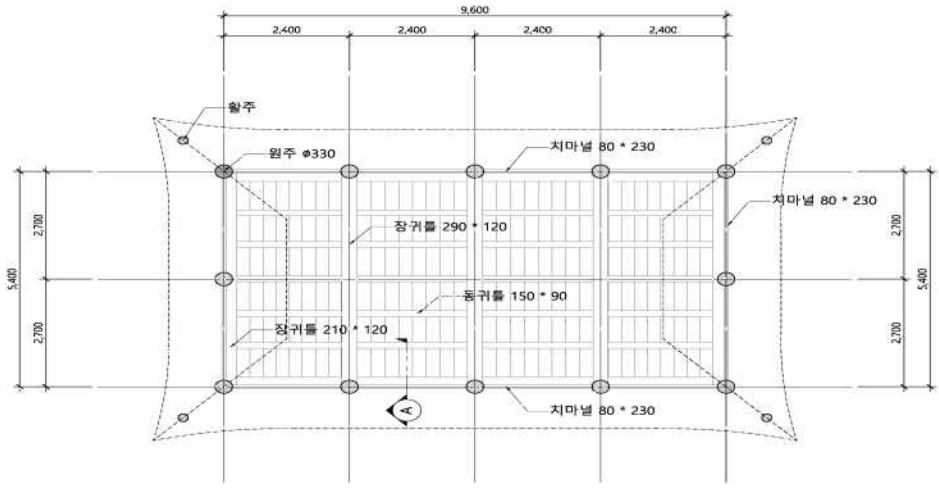


그림 12. 영호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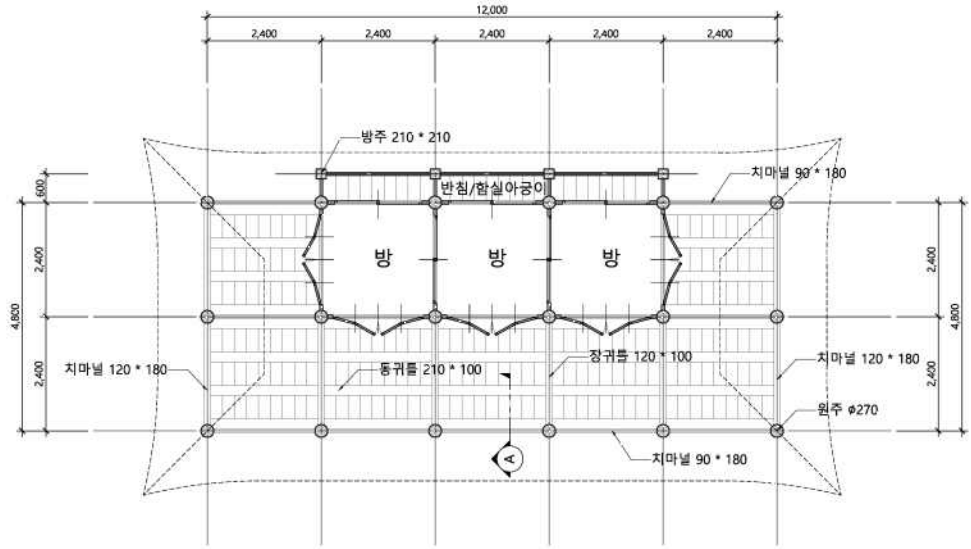


그림 13. 양벽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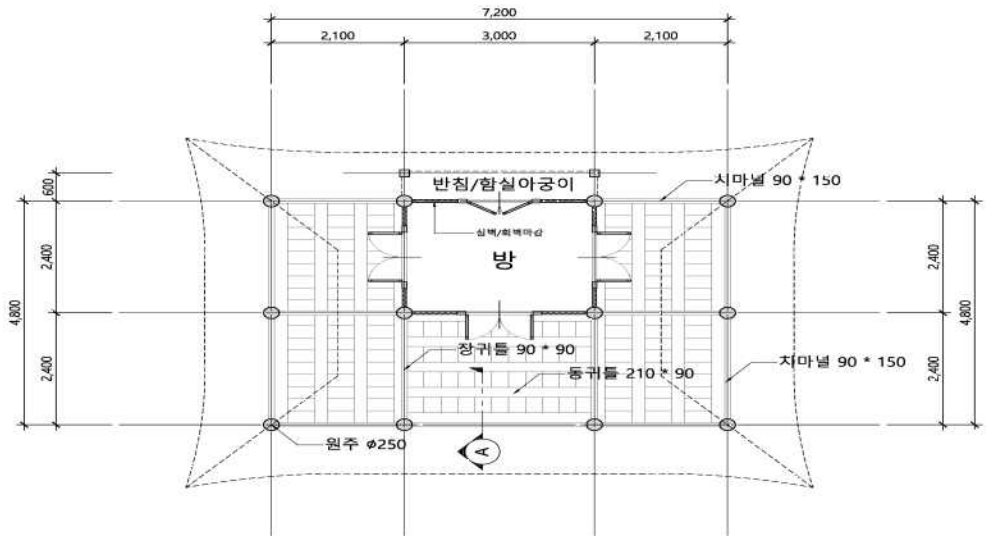


그림 14. 계은정 평면도

양벽정(漾碧亭)은 풍산1리 동녘 영호정과 마주하고 있다. 1587년(선조 20) 화순에서 창건되어 1946년 이곳으로 이건 되었고, 이때 이층 누각대문과 연지가 함께 만들어졌다. 이 누정은 전면 5칸, 측면 2칸의 양통형으로 홑처마 팔작집이며, 전면과 측면의 간살은 모두 8자(2.4m)로 통일되었고, 세 칸의 방은 그 후면에 2자(600mm) 깊이의 반침을 두어 수납공간을 마련하였다. 오늘날 도래마을의 주요 행사가 진행되는 마을의 중심공간이다.

계은정은 마을 주산인 식산의 산기슭에 자리하여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이다. 양벽정이 사회적 공동체 형성의 구심점으로서 마을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조망의 대상이라면, 계은정은 마을이라는 사회적 요소와 수림이라는 자연적 요소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서 마을과 주변을 바라보는 조망점이라 할 수 있다. 이 계은정은 전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직절익공으로 포작한 홑처마 팔작집이다. 현재 개량된 일체형 기와를 사용하였고, 차양도 시설된 상태이다. 전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전면과 좌우측면은 마루를 놓고, 후면 중앙 1칸은 방으로 구성하였다. 전면 간살은 중앙 어칸(御間)은 10자(3m), 양측 협칸(夾間)은 7자(2.1m) 크기로 방이 놓인 어칸의 폭을 크게 하였다. 측면 간살은 8자(2.4m) 폭으로 구성하여 후면에 2자(0.6m) 깊이의 반침을 두고 그 하부에 함실아궁이를 두어 난방이 가능토록 하였다.

도래마을 누정의 평면구성은 통칸형 내지 후열 중앙을 방으로 꾸민 형식이다. 영호정은 통칸형으로 일반적인 농촌마을의 동각(洞閣)의 형식이며, 양벽정과 계은정은 온돌방을 두었다. '전라지역 정자건축의 배치 및 평면 유형 특징에 관한 연구'(최경란 외2인, 2009)에서 배치에 따라 평지형, 배수임수형, 산마루형으로 분류하고, 가장 많은 평면 사례는 중앙온돌형임을 밝혔다. 따라서 도래마을의 정자는 지역적인 평면특성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루보다 방의 비중이 컸으며 , 온돌방이 중앙에 위치했기 때문에 전·후면의 마루는 퇴(退)의 역할을 하였고 , 양측면 마루가 주 사용공간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면 규모는 3칸에서 5칸까지 구성되었고, 측면은 모두 2칸으로 구성되었다. 도래마을 축제와 같은 동네 행사에 활용되는 양벽정이 전면 5칸 규모로 도래마을 누정 중에 가장 크며, 계은정은 전면 3칸으로 가장 작은 규모이다. 간살은 전면의 경우 8자(2.4m)가 주를 이루고, 영호정만이 9자로 구성하여 측면 폭을 유난히 크게 한 점이 두드러진다. '호남지방 정자건축의 기둥 칸모

듈구성에 관한 연구'(김진수, 2010)는 모듈최대값 A 즉, 간살이 전북지방에서는 7尺~8尺이, 전남지방의 경우는 1尺 가량이 더 큰 8尺과 9尺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고 밝히고 있어, 도래마을 누정의 간살 또한 지역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계은정은 중앙 어칸(御間)은 10자로, 양협칸은 7자로 구성하여 온돌방의 크기를 키운 점이 특이한데, 김진수(2010)는 일반적으로 정자를 구성하는 칸사이모듈의 최대값인 정면-중앙모듈 A보다 1尺~2尺 작은 모듈B를 A좌우에 협칸으로 사용하고, 측면에는 A값보다 0.5~1尺작은 C모듈을 사용하는 구성이 일반적임을 말하고 있는데 계은정이 이에 해당되는 사례이다.

2) 종단구성과 포작

영호정의 종단구성은 양통형으로, 가구는 무고주오량가(無高柱五樑架)이다. 직경 11자(3.3m)의 원주를 사용하였고, 활주를 놓아 처마의 처짐을 보강하였다. 기둥 상부는 1치 줄어든 크기로 치목하여 민흘림이 적용되었다. 기둥 상부에 사괴(십자형의 홈)를 만들어 보아지와 창방을 끼우고 주두를 놓아 보머리를 얹어 익공(翼栱)으로 포작(包作)하였고, 보아지의 머리는 직절되었다. 보와 굴도리를 결구하고 도리 밑 장혀와 창방의 간격은 소로를 끼워서 장식하였다.

양벽정의 종단구성은 양통형으로 그 중앙에 기둥이 놓인 소위 양통심주형(兩通心柱形)이다. 심주를 기준으로 벽을 세워 방과 마루공간을 구획하여 두 공간의 비중을 같게 하려는 의도이다. 가구 형식은 무고주오량가라는 점에서 영호정과 같으나, 방을 구획하기 위해 내부에 심주를 세우고 양편으로 맞보를 건 점에서 큰 차이를 갖는다.

중앙에 심주가 놓임으로 보가 마주하듯 걸리는 맞보로 구성되었다. 맞보 위에 동자주(童子柱)를 놓아 종보와 중도리를 지탱함이 보통인데, 양벽정은 보아지와 첨차를 놓아 주두를 올려 종보를 놓은 점이 눈에 띈다. 오히려 동자주는 심주의 위에 놓아 종보의 중앙을 지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동자주는 종보의 하중을 받기 보다는 벽체의 구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종보 위에 원형 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얹었고, 측면 서까래를 지탱하는 외기도리는 충량

(衝樑)이 그 중앙 하부를 지지하는 중앙지지형이다. 이때 외기도리를 마치 균형을 잡고 있는 저울대와 같다하여 저울대보라고도 부른다. 외기도리와 충량 사이는 마치 공포의 첨차처럼 꾸며 멋을 더하였다.

그림 15. 양통심주형(양벽정)

그림 16. 양통심주형(계은정)

그림 17. 직절익공 포작(영호정)

그림 18. 우물반자(영호정)

외벌대의 기단에 다듬어진 정평주초를 놓아 9치(270mm) 직경의 원주를 세웠고, 윗단이 줄어드는 민흘림을 두었다. 주초에서 400mm 높이에 마루를 구성하였고, 그 위로 7자(2,100mm) 높이에 주두를 놓았다. 기둥 상부에 사괴를 만들어 보아지와 창방을 십자로 결구하였고, 주두를 놓아 보머리를 얹은 직절 익공(翼栱) 포작이다.

계은정의 종단구성은 양통집으로 방을 구획하기 위한 벽체 구성을 따라 중앙에 기둥을 세운 양통심주형(兩通心柱形)이며, 심주 양편으로 맞보를 걸었다. 흥미로운 것은 종단구성의 구법이 양벽정과 동일하다는 점이며, 그 측면의 간

살 또한 8자 크기로 공통점을 갖는다. 다만 전면 간살은 양벽정의 경우 8자로 등분하였으나, 계은정은 중앙 어칸만 10자로 키우고 양 협칸은 7자로 구성한 점이 다르다.

외벌대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아 직경 250mm의 원주를 세웠다. 원주는 윗단이 1치 줄어든 민흘림이 적용되었고, 보아지와 창방을 십자로 결구하여 주두를 놓아 보와 도리를 얹었으며, 보아지의 끝단을 직절한 직절 익공(翼栱) 형식이다.

3) 귀틀의 구성

다음 상세도는 각 평면도의 A 부분 상세도로 귀틀의 단면을 그린 것이다.

영호정의 귀틀은 기둥과 기둥을 잇는 장귀틀(長耳機)의 경우 290×120mm, 장귀틀과 장귀틀을 잇는 동귀틀(童耳機)은 150×90mm로 시설하여 두께 45mm의 마루 청판(廳板)을 제혀쪽매로 끼웠다. 마루 가장자리는 80×230mm 크기의 치마널을 둘러 장귀틀의 옆면을 가렸는데, 그 하단이 장귀틀의 밑면 위치에 놓여 턱을 형성하고 있고, 이 턱은 오침 때 침목으로도 쓰이곤 한다.

그림 19. 우물마루(계은정)

그림 20. 귀틀 하부(영호정)

양벽정의 마루는 마주하고 있는 영호정과 같이 우물마루로 시설하였는데, 그 구성은 사뭇 차이를 갖는다. 가장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장귀틀의 단면 크기이다. 영호정의 장귀틀은 290×120mm로 그 폭이 1자에 가까우나, 양벽정은 120×100mm로 그 폭이 4치에 불과하다. 이는 종단구성의 차이에서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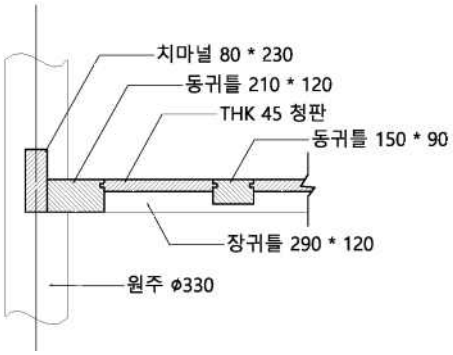


그림 21. 영호정 귀틀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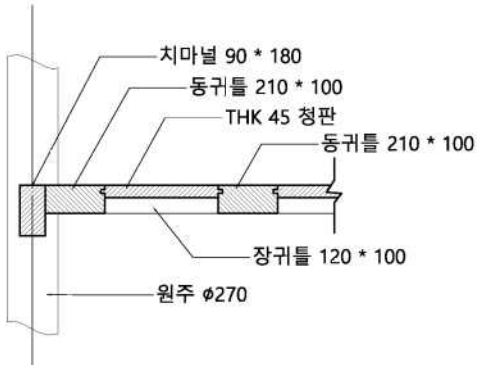


그림 22. 양벽정 귀틀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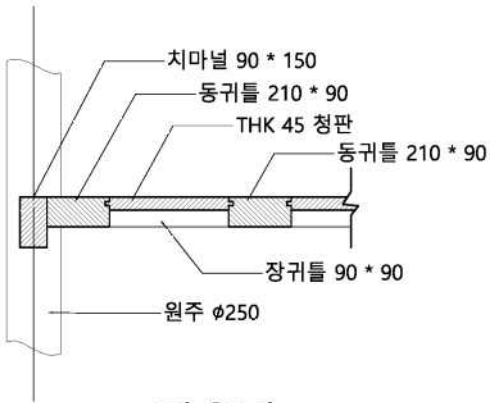


그림 23. 계은정 귀틀 상세도

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영호정은 통칸형으로 내부에 기둥이 없어, 장귀틀의 길이가 18자가 되고, 양벽정은 심주형으로 중앙에 기둥이 있어, 장귀틀의 길이가 측면 길이의 절반인 8자이다. 길이가 긴 영호정의 장귀틀의 폭이 큰 것은 당연하다.

한편 치마널의 단면크기에서도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는데, 영호정의 치마널은 전면과 후면, 전후측면 80×230mm로 모두 동일한 반면, 양벽정의 경우는 전면과 후면은 90×180mm이고 좌측과 우측면은 120×180mm으로 그 폭이 1치의 차이를 갖는다. 그 이유는 영호정은 좌우 양단에도 장귀틀을 시설하여 치마널이 하중을 받지 않지만, 양벽정의 경우는 좌우 양단에 별도의 장귀틀이 없이 치마널이 장귀틀의 역할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좌우 양단의 치마널은 하중을 부담하기에 하중 부담이 없는 전후 치마널에 비해 1치 크게 구성되었다고 풀이된다.

4) 창호 및 수장

영호정의 천장은 소란(小欄)을 우물 정(井)자 형태로 짠 우물반자로 구성하였고, 바닥 역시 우물마루로 시설하였다. 우물마루는 주초에서 약 70cm 높이로 40cm가 보통인 누정들 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양벽정의 방 출입문은 모두 띠살 문양의 사분합들어걸게문으로 구성하였고, 방과 방 사이 그리고 반침은 미서기 문으로 만들었다. 사분합의 상부에 광창(廣窓)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양벽정은 머름과 같이 판벽으로 구성한 점이 눈에 띈다. 광창을 두는 이유는 내부에 더 많은 빛을 들이기 위함인데, 영벽정은 3면이 사분합으로 구성되어 채광이 충분하기에 판벽으로 구성하였을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광창과 그 위에 놓이는 도리 사이의 벽면을 목재로 채운점도 특이하다. 벽체는 심벽 즉, 외엮기를 하고 양면에 흙벽을 치는 것이 보통인데, 양벽정은 남은 벽체를 목재로 채웠고, 후면에 달아낸 반침 만을 심벽으로 구성하였다. 천장은 방의 경우 방반자를 두었고, 마루는 서까래가 들어나 보이는 연등천장으로 놔두었다.

계은정은 전면 서까래는 장연(長椽)과 단연(短椽)으로 구성하고, 장연의 뒷뿌리를 가리기 위해 눈썹반자가 시설되었다. 측면 서까래의 뒷뿌리는 외기도리에 놓이는데 그 안쪽으로 눈썹반자를 두어 이를 가리었다.

그림 24. 판벽의 구성(양벽정)

그림 25. 눈썹반자(계은정)

3. 맺음말

도래마을은 나주 다도면의 북단인 풍산리에 자리하여, 전면에 펼쳐진 독뱅이들의 가장자리에서 식산 자락이 시작되는 곳에 입지하고 있다. 마을의 유력한 문중인 풍산홍씨의 두 계파와 강화최씨가 각각 봉우리 하나와 물길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풍산홍씨 봉교공파는 풍악산에 대응하는 후곡, 석계공파는 감태봉에 대응하는 동력, 강화최씨는 주산봉에 대응하는 내촌을 차지하여 각각 일정한 독립성과 완결성을 가지고 주거지들이 정착된 곳으로, 이 지역 씨족마을의 모습을 오늘날까지 잘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서쪽의 농지와 동쪽의 산지 사이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큰 길이 지나가고, 3개의 물길과 나란한 3개의 안길로 각각의 주거지 영역으로 접근한다. 이 길들의 끝은 배산임수의 최적지로서 각 문중의 종가가 선점한 곳이며, 세 줄기의 물이 각각의 주거지를 지나 서쪽들에서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그 모양과 의미가 실로 내 천(川)자와 유사하여 도래(道川)라는 지명을 낳는다.

종법적 규제로 인해 종가로 가는 길 주변에 자리잡게 되고, 이에 따라 안길이 가지형으로 발달하게 되면서 점차 안쪽으로 주거지가 확장되어 현대 행정구역인 내촌, 동력, 후곡으로 구획된다. 중앙부 동녘의 줄기가 가장 먼저 형성되고 후곡, 내촌 순으로 줄기가 생긴 것으로 보이며, 중앙 줄기는 석계공파, 후곡 줄기는 봉교공파의 종가가 각각 종착지점을 이루고 있다.

세 개의 줄기가 외향적, 공식적 남성적이라면 이들 줄기의 사이 사이를 잇는 가지들은 내향적, 비공식적, 여성적 루트라 할 수 있다. 또한 각 줄기 사이에 영역을 가르는 녹지가 충분히 있었으며, 북단에 놓은 후곡의 녹지는 겨울 찬 바람을 막는 방풍림이다.

도래마을의 단위주거인 살림집은 전통한옥과 근·현대에 지어진 일반적인 농촌한옥 그리고, 전라남도의 행복마을 사업에 의해 근자에 지어진 신한옥들이 혼재해 있다. 또한 도래마을은 동녘에 자리한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한옥을 기준으로 반경 500m 이내의 건축행위가 현상변경 검토를 거치는 등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

조선시대 호남지역에서는 은거와 유배를 위한 누정과 별서가 많이 조영되었다. 누정은 유학적, 도학적 사고를 응축한 무릉도원(유토피아)으로 사회교류

의 장이 되었으며, 이 지역 조선시대의 누정은 호남사림의 세계관이 투영된 곳으로 풍류를 중시하고 산이 낮고 평야가 많은 호남의 문화적,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도래마을에 자리한 전통양식의 누정은 영호정과 양벽정, 계은정이 꼽히며, 호남지역 누정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 한편 누정의 성격에 따라 입지와 평면형식, 규모, 상부가구 등 차이를 갖으며, 영호정과 양벽정은 마을 공동시설이란 점에서 동질성이 있으나 그 용도와 사용시기가 차이점을 갖고 있다. 또한 계은정은 공용성을 띄는 영호정, 양벽정에 비해 보다 사적 공간의 성격을 갖는다.

도래마을 누정의 평면구성은 통칸형 내지 후열 중앙을 방으로 꾸민 형식이다. 영호정은 통칸형으로 일반적인 농촌마을의 동각(洞閣)의 형식이며, 양벽정과 계은정은 온돌방을 두었다. 이러한 중앙온돌형 평면은 호남지역 누정의 주된 형식으로, 도래마을의 정자는 지역적인 특성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면 규모는 3칸에서 5칸까지 구성되었고, 측면은 모두 2칸으로 구성되었다. 도래마을 축제와 같은 동네 행사에 활용되는 양벽정이 전면 5칸 규모로 도래마을 누정 중에 가장 크며, 계은정은 전면 3칸으로 가장 작은 규모이다.

간살은 전면의 경우 8자(2.4m)가 주를 이루고, 영호정만이 9자로 구성하여 측면 폭을 유난히 크게 한 점이 두드러진다. 8尺과 9尺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남지방의 지역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계은정은 중앙 어칸(御間)은 10자로, 양 협칸은 7자로 구성하여 온돌방의 크기를 키운 점이 특이한데, 이 또한 중앙 어칸에 비해 1尺~2尺 작게 협칸으로 사용하는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종단구성은 양통형(兩通形)을 기본으로 하고, 양벽정과 계은정은 중앙에 평주를 세운 양통심주형(兩通心柱形)에 해당하는데 이는 온돌방의 구성과 관계된다. 심주를 기준으로 벽을 세워 방과 마루공간을 구획하여 두 공간의 비중을 같게 하려는 의도이다. 가구(架構)는 무고주오량가(無高柱五樑架)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양통심주형인 양벽정과 계은정은 심주를 세워 양편으로 맞보를 건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기둥은 모두 원주를 세웠고, 직경은 240mm~330mm의 크기로 측면 길이가 가장 넓은 영호정이 가장 굵은 기둥을 사용하였다. 이들 원주는 상단이 밑단에 비해 1치 줄어든 민흘림이 적용

되었다.

누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우물마루를 구성하는 귀틀은 종단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장귀틀의 단면 크기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데, 영호정의 장귀틀은 290×120mm로 그 폭이 1자에 가까우나, 양벽정은 120×100mm로 그 폭이 4치에 불과하다. 영호정은 통칸형으로 내부에 기둥이 없어, 장귀틀의 길이가 18자로 긴 반면, 양벽정은 심주형으로 중앙에 기둥이 있어 장귀틀의 길이가 측면 길이의 절반인 8자로 짧다. 이와 같이 장귀틀의 길이가 길어지는 통간형이 그 단면 크기도 커지는 것이다.

또한 치마널의 단면크기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양측면의 장귀틀 유무와 관계지을 수 있다. 영호정의 치마널은 전면과 후면, 전후측면 80×230mm로 모두 동일한 반면, 양벽정의 경우는 전면과 후면은 90×180mm이고 좌측과 우측면은 120×180mm으로 그 폭이 1치의 차이를 갖는다. 그 이유는 영호정은 좌우 양단에도 장귀틀을 시설하여 치마널이 하중을 받지 않지만, 양벽정의 경우는 좌우 양단에 별도의 장귀틀이 없이 치마널이 장귀틀의 역할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좌우 양단의 치마널은 하중을 부담하기에 하중 부담이 없는 전후 치마널에 비해 1치 크게 구성되었다고 풀이된다.

이상과 같이 도래마을은 이 지역 씨족마을의 모습을 잘 간직한 채, 전통주거문화와 더불어 호남의 문화적, 지역적 특성이 투영된 정자문화와 함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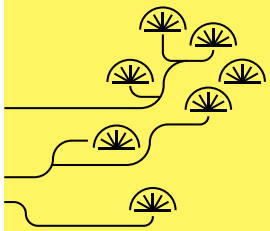
참고문헌

김진수 외 2,「호남지방 정자건축의 기둥 칸모듈구성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12-4(통권 44호), 2010

윤일이,「조선중기 호남사림의 누정건축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7, 2006

최경란 외 2,「전라지역 정자건축의 배치 및 평면 유형 특징에 관한 연구」, *"Journal of Oriental Culture&Design"* 1-2, 2009.

한국예술종합학교 도시건축연구소,『나주 도래전통마을 조성 계획 연구』, 2007.



토론문

‘나주 풍산홍씨 가문의 문집과 인물’에 대한 토론문

김기림(조선대학교)

선생님의 이 글은 오래 전부터 나주 도래마을에 정착해서 삶을 영위하던 ‘홍씨 가문의 문집과 인물’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 연구 영역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지역의 문화유산, 지역인들의 저작이나 저술들을 본격적으로 고찰하여 그 내용을 상세하게 드러내고 의의를 천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 글은 매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고전적(古典籍) 연구’ 분야에서 영남에 비해 호남의 고전적 발굴이나 연구가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인 상황에서 호남 나주인의 고전적을 고찰하여 그 의의를 밝혔다는 점에서 이 글은 호남 지역 문화 유산 연구사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지대하다고 할 만합니다. 다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쭙는 것으로써 토론 책무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이 글에서는 석애 홍봉주, 석천 홍규식, 성남 홍석희에 대한 소개 및 그들의 문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연구나 가계적 연구(家系的 硏究)는 이 글에서 처음 시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주홍씨 가문 특히 나주 도래마을로 이주한 이후의 ‘홍씨 가계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여주신다면 홍씨 가문의 세계(世系)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될 듯합니다.

2.『석애선생문집』,『석천유고』는 홍석희가 자료를 모으고 편집한 문집입니다. 문집 편찬의 경우 있는 자료를 모두 넣기도 하거니와 선별하여 넣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편집자의 편집의식이 반영되기 마련인데 위의 두 문집에서 보이는 ‘편집의식’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3. 이 글에서는『석애선생문집』『석천유고』『성남만록』3개 문집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앞의 2개의 경우 홍석희가 엮었고,『성남만록』은 홍석의 자신이 자기의 시문을 정리하여 문집을 만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후손이 엮었든, 자신의 시문의 자신이 직접 정리했든, 현재 우리가 접하는 문집들은 나름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문집들은 현재 각각 어떤 의의 또는 의미가 있는지, 지역 문화 분야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울러 홍석희의 경우 노사학파를 계승한 사람이기도 합니다.『성남만록』이 노사학파 관련 텍스트들의 영역 안에서 차지하는 의미 또는 그 위상에 대한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혹여 선생님의 저술 의도에 대해 잘못 이해하여 질문한 점이 있다면 너그럽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문 작성을 위해 선생님 글을 읽어가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주 도래마을의 공간구성과 정자건축’에 대한 토론문

위주영(전남대학교)

학술대회 주제가 ‘나주 도래 풍산홍씨 가문의 역사와 문화’다. 풍산홍씨 가문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과 가문의 문화를 어떻게 현대에 전승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김재웅 발표자는 ‘도래마을의 공간구성과 정자건축’에 대해 기술했는데, 건축 전문가로서 충실한 발표에 대체로 공감하며, 몇 가지 아쉬운 점만 짚어보고자 한다.

1. 공간구성에 대한 연구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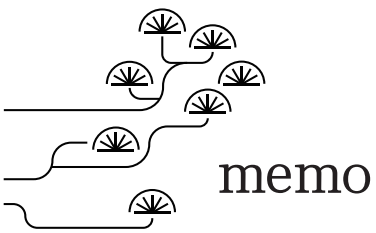
나주 풍산홍씨 가문이 기탁한 자료를 토대로 한 인물과 문집 분석 등 본 학술대회에서는 유의미한 연구가 진행됐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는 것은 선조들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계승하여 오늘날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판단된다. 발표자는 조선시대 씨족마을 구성을 생활영역, 생산영역, 의식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전제했으나, 본 발표에서는 도래마을의 생활영역으로 살림집, 생산영역으로 독뱅이, 공동체 시설로 정자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세 영역을 충분히 조명하지 않았다. 또 가문별로 나눠진다는 후곡, 동녘, 내촌마을 공간의 특징이나 위계질서에 따른 마을 구성의 차이, 가옥의 특징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이 아쉽다. 공간구성 요소 가운데 정자만을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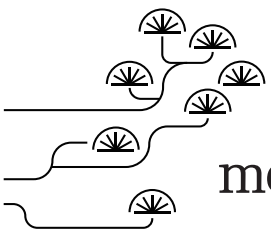
2. 정자 건축구조 분석에 치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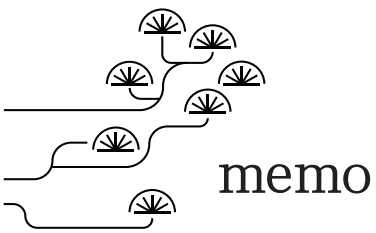
발표자는 도래마을의 공동체적 시설로 중요한 건축을 정자라고 규정했다. 공동체 정신이 깃든 공간이라는 점 때문에 의식영역으로 구분한 듯하다. 하지만 각 정자가 어느 시기에 누가 건립하였는지, 정자에서는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누가 주로 이용했는지 보다 평면구성, 마루, 공포, 창호 등 건축적 특징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다. 건축 전공자가 아닌 다수 일반인에게는 풍류, 정신수양과 같은 목적으로 지어졌다는 가정 하에 같은 지역의 정자가 각각 다른 평면과 구조로 지어진 이유나 건축적 차이가 빚어낸 공간의 특징, 사용목적 등에 더 궁금증을 가질 것이다. 특히 마을 주요행사가 진행되는 공간이라는 양벽정, 도천학당의 역사를 전승했다는 영호정, 서당이었다는 계은정 등 정자가 가진 지리적 조건과 규모, 건축적 차이, 시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추가된 기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3. 마을공간의 현대적 활용 제시

그간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도래마을은 양벽정 합동세배 풍습, 구휼미 창고와 고택 굴뚝 등의 특징이 있고, 문화재로 지정된 가옥마다 특이사항이 있다. 발표자는 도래마을 정자에 대해 연구했는데, 정자 건립당시 초기 목적과 이후 추가된 기능과 특성, 향후 활용방안 제언 등이 구조 분석과 함께 보완되었다면 더 풍성한 논문이 되었을 것 같다. 한 번의 연구에 모든 것을 아우를 수는 없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기를 기대해본다.


memo


memo


memo

2020년 호남 문헌세가 학술대회

나주 도래 풍산홍씨 가문의 역사와 문화

발행일 2020년 11월 18일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4층
Tel. 062-603-9600, 062-603-9627
Fax. 062-941-6705
https://www.hiks.or.kr

※ 본 책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2020 호남한국학 진흥지원 사업(기초자료 정리보존)”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물이며, 여기에 실린 글과 도판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